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와 대학생의 만성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임 성 문**

초 록

지연행동은 해야 할 과제를 불필요하게 미루는 것으로 만성적 지연행동은 학생들의 학업부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함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만성적 지연행동은 단순히 태만한 태도나 시간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심리적 특성들이 연결된 복합적인 특성으로 밝혀져 이의 극복을 위해서 확장된 치료프로그램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치료프로그램의 모형개발을 위한 사전연구의 일환으로 문헌개관을 통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기적 특성으로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를 상정하여 이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한 다음, 자기효능감이 이 변인들과 만성적 지연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268명의 대학생에게 실시한 질문지 자료를 요인분석과 중다회귀분석 및 Baron과 Kenny가 제안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감각추구의 권태민감 요인, 완벽주의의 성취추구완벽주의 요인, 자기효능감이 지연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고, 자기효능감은 실패공포를 포함한 이 변인들과 지연행동 사이에서 완전매개 또는 부분매개 역할을 함이 확인되었다. 논의에서 예상과 달리 완벽주의의 평가염려완벽주의 요인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것을 비롯해 몇몇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함축성을 기술하였다.

주제어 : 만성적 지연행동,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사회대 심리학과, 교신저자(sungmoon@chungbuk.ac.kr)

I. 서 론

지연행동(procrastination)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제의 착수와 완성을 불필요하게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지연행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비교적 늦게 1980년대에야 시작되었는데, 이는 대학생의 46%가 자신을 거의 언제나 지연행동하는 사람이라 보고 있고 비임상 성인의 20%정도가 만성적으로 지연행동 하는 사람이라 보고하듯(Harriot & Ferrari, 1996), 지연행동이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현상이기에 과학적 연구에 대한 신임을 얻기에는 불충분한 주제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근래 연구들에서 지연행동은 광범위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지연행동을 자주하는 사람들은 내적으로는 비합리성, 후회, 절망, 불안, 우울, 자기비난에 시달리고 죄의식 및 수치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자존감과 자기효능감도 낮았다. 외적으로는 학습부진과 저조한 학업성적을 가져오고, 직업상 기회를 상실하게 되거나, 대인관계 및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Ferrari, Johnson, & McCown, 1995).

지연행동의 부정적 결과가 인식되면서 지연행동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접근이 제기되었는데, Baumeister 등은 자신이 기대하는 목표수준과 이를 달성하기위해 실제로 행하는 수행과의 격차가 지연행동을 유발한다고 하고, 지연행동의 극복에는 의지력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Baumeister, Heatherton, & Tice, 1994; Muraven, Tice, & Baumeister, 1998). 그러나 의지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며 사람에 따라서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별히,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지연행동을 하는 만성적 지연행동자는 이러한 의지를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특성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지연행동과 관련된 특성변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구실만들기,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자존감, 낙관성-비관성, 비합리적 인지, 내외적 동기, 내외통제소재, 충동성, 특성-상태불안, 사회불안, 공적-사적 자기의식, 자기제시, 자기신뢰, 비경쟁성, 지배성, 대인관계 통제력, 정체감, 밤에 일하기, 부모의 비판, 반항성, 몰입 등이 관련된 변인으로 밝혀졌다.(Ferrari, 2004; Ferrari, et al., 1995).

이러한 다양한 특성과의 관련성은 만성적 지연행동이 단순히 의지력 부족의 문제이거나 비효율적인 시간관리의 문제이기보다 보다 복합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만성적 지연행동은 연구들에서 다양한 심리적 증상들과 .21 - .41의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심리적 증상들이 완화된 후에도 지연행동은 거의 감소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안정된 특성임을 시사하고 있다(Ferrari & Pychyl, 2000; Johnson, 1992). 이에 따라 연구자들(Ferrari, et al. 1995; Schounwenburg, 2004)은 만성적 지연행동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시간관리나 과제기술 향상에 그치기보다 관련된 심리적 변인을 다루는 확장된 치료프로그램이 되어야 함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만성적 지연행동 개입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의 일환으로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적 지연행동자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변인들이 지연행동과 관련을 보이고 있어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지연행동을 예측하는 전형적 프로파일의 확인을 어렵게 한다(Ferrari, 200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메타연구(Eerde, 2003, 2004)와 개관연구(Ferrari, 2004; Ferrari, et al., 1995)에서 지연행동에 높은 설명량을 보였던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를 예측변인으로 상정하는데, 많은 연구에서 과제혐오와 관련된 감각추구와 실패공포는 지연행동을 예측하는 대표적 두 변인으로 진술되고 있고(Ferrari, 2004; Ferrari, et al. 1995), 완벽주의는 근래 다차원적인 척도가 사용되면서 몇몇 하위척도가 지연행동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그 관련성이 주목받고 있다(Martin, Flett, & Hewitt, 1993).

한편, 대부분의 지연행동관련 변인연구는 근래까지도 지연행동과의 단순상관이나 회귀분석 수준에 머물러 매개나 조절변인을 밝히는 연구가 아직은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지연행동의 원인과 기제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Flett, Blankstein과 Martin(1995)은 지연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포괄하는 모델을 제안하면서 관련변인 간의 매개연구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연행동관련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고, 많은 연구들에서 동기적 예언변인과 행동-정서적 결과변인 사이의 매개효과를 보인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여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와 만성적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1.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감각추구자가 보이는 다양하고 신기하며 강렬한 감각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성향과, 충동성 및 사회규범에 비동조적인 형태, 그리고 일상생활의 따분함에서 벗어나 새롭고 긴장감 있는 행동을 즐기려는 경향성(Zuckerman, 1994)은 지연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

Ferrari(1992)는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쉽게 싫증을 내고 흥분감을 맛보고 싶기 때문에, 마감시간 직전에 짜릿한 각성을 느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제 수행을 지연한다고 보았다. 또한 Kuhl(1984, 2000)의 행동통제 이론에 의하면 지연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즐겁지 않은 과제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긴 시간 후에 보상을 받는 것보다는 단 시간 내에 보상을 받는 행동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성은 어렵거나 지루한 혐오적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동으로 과제수행을 대체하는 지연행동에서 두드러지는데(Ferrari, 2004; Scher & Ferrari, 2000), 이러한 유형의 지연행동은 감각추구성향이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Ferrari, 1992, 1993).

경험적 연구에서도 감각추구 및 그 하위요인들이 지연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는데, 감각추구성향(Ferrari, 1992), 권태민감성(Blunt & Pychyl, 1998; Vodanovich & Rupp, 1999), 모험성과 충동성(McCown, 1995), 충동성(Dewitte & Schouwenburg, 2002)이 지연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이거나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보고되었다.

한편, ‘성취기준을 달성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과 ‘성취기준 미달로 발생할 수 있는 실패의 결과’는 실패공포를 유발하는데(Conroy, Willow, & Metzler, 2002), 지연행동에 관한 대중적인 책을 펴낸 Ellis와 Knaus(1977) 및 Burka와 Yuen(1983)은 이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Solomon과 Rothblum(1984)은 지연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를 수집하여 13개의 이유를 선별하고, 이를 기초로 만들어진 문항들로 구성된 지연행동척도를 실시하여 얻어진 자료를 요인 분석한 결과 두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중 하나가 실패공포라고 명명한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과제혐오라고 명명한 요인이다. 실패공포 요인은 지연행동 전체변량의 49.4%를 설명했는데 이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에 응답한 피험자는 6%~14%이었다. 이는 실패공포로 인해 지연행동하는 사람은 6%~14%에 불과하지만 이들에서는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의 강력한 동기가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호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Beswick, Rothblum과 Mann(1998)과 화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Schouwenburg(1992)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얻음으로서 실패공포의 중요성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Rothblum(1990)은 Solomon과 Rothblum(1984)과 그 밖의 연구들을 근거로 지연행동의 회피모델을 제안했는데, 실패공포가 높은 사람들은 과제 마감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걱정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지연행동을 함으로써 자극을 회피하면 불안이 경감되고, 불안이 경감되므로 회피행동인 지연행동이 강화된다는 모델이다.

세 번째 변인인 완벽주의는 지연행동이 과도하게 높은 기준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연행동을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가정되어 왔고 이를 확인하는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예컨대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의 연구에서 지연행동에 대해 그들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MPS)의 하위요인인 실수에 대한 염려가 25%, 조직화가 15.7%, 부모의 비난 8.6%, 개인적 기준이 7.1%, 수행의심이 4.6%, 부모의 기대가 3.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lett, Blankstein, Hewitt와 Koledin(1992)에서 Hewitt과 Flett(1991)가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MPS)의 요인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지연행동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Martin, Flett과 Hewitt(1993)는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기대의 중재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Hewitt과 Flett의 완벽주의 세 차원은 지연행동변량의 13%를 설명하였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가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둘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높은 수준의 지연행동과 상관이 있었고,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는 낮은 수준의 지연행동과 상관이 있었다. 셋째, 성공에 대한 자기-기대가 높을 때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지연행동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성공에 대한 자기-기대가 낮을 때는 낮은 수준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은 수준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보다 지연행동을 훨씬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해외연구들의 개관을 통해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가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근래 이루어진 몇몇 국내 석사학위논문들은 해외연구들과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모험과 자극추구 성향은 지연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김현정, 2003), Hewitt

과 Flett의 완벽주의 세 차원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지연행동과 유의미한 상관 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김연실, 2000; 김현정, 2003), 유의미한 상관 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강미정, 2005; 박재우, 1998). 또한 실패공포는 지연행동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거나(김환, 1999),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김현정, 2003).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들의 해석처럼 서구와 다른 문화차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용된 척도의 차이와 심리측정적 적절성이 검토되지 않은 척도의 사용에 기인할 수도 있다.

한편, 근래 들어 실패공포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어 연구에서 다차원척도(Conroy, 2001)가 사용되는 추세이고, 완벽주의 연구는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Frost 외(1990)의 FMPS와 Hewitt과 Flett(1991)의 HMPS를 요인분석하여 추출한 요인이 많이 사용된다. 나아가 생물학적 요인으로 간주되던 감각추구는 Arnett(1994)에 의해 사회화요인이 강조되면서 그 사회의 문화에 적합한 문항을 추가하는 변안이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경향에 발맞추어 다차원 실패공포척도, 두개의 완벽주의 척도, 우리 문화에 적합한 문항을 추가한 감각추구척도를 사용하고, 연구의 일차적 관심사로 척도들의 요인분석을 통해 심리측정적 적절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자기효능감과 지연행동

자기효능감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된다(Bandura, 1986). 개인의 자기효능감 수준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높은(낮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은 높은(낮은) 수준의 노력과 성공을 불러오게 된다(Bandura, 1977a). 이러한 Bandura의 주장과 일치하게 자기효능감은 과업수행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중요변인임이 밝혀졌고(Eccles & Wigfield, 2002; Stajkovic & Luthans, 1998), 지연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Chu와 Choi(2005), Loebenstein(1996), Tuckman(1991), Tuckman과 Sexton(1991)에서 자기효능감은 지연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거나,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특별히 지연행동과 관련된 다수의 변인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 연구를 수행한 Ferrari, Paker와 Ware(1992) 및 Haycock, McCarthy와 Skay(1998)에서 유일하게 자기효능감만이 유의미하게 지연행동을 예측하였다. 국내연구(서은희, 2006; 홍승일, 현명호, 2005)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36~.40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고하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이는 Eerde(2003)의 지연행동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는 행동의 시발과 방향설정 및 강도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동기변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자기효능감은 동기를 매개 또는 중재하여 과제수행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Eccles & Wigfield, 2002),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와 만성적 지연행동 간의 매개역할을 가정해볼 수 있다. 실패공포,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고한 연구(Caraway & Tucker, 2003; Dinter, 2000; LoCicero & Ashby, 2000)와 이 두 변인과 과제수행 간에 자기효능감의 매개 또는 중재역할을 보고한 연구(김근홍, 이민규, 1998; Loebenstein, 1996)는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연행동에 미치는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 이 과정에 작용하는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충북지역 1개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317 명을 대상으로 척도배치 순서를 달리한 5세트의 질문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한 대학생들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무응답이 있는 33명과 Mahalanobis distance를 이용하여 파악한 다변량극단치 16명을 제외한 268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성별은 남자 48.5%(130명), 여자 51.1%(137명), 무응답 0.4%(1명)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43.3%(116명),

2학년 25.0%(67명), 3학년 16.8%(45명), 4학년 14.6%(39명), 무응답 0.4%(1명)이었다. 평균연령은 22.5세(SD=2.4세)로 19~33세의 범위를 보였다.

2. 측정도구

1) Lay의 지연행동척도

Lay(1986)가 개발한 5점 리커트식의 20문항으로 구성된 일반적 지연행동 척도(General Procrastination: GP)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 계수는 $\alpha=.78$ 에서부터 $\alpha=.89$ 까지이고, 한달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80$ 이었다. 다양한 실제 지연행동들에서 이 척도의 고득점자와 저득점자들의 유의한 차이에 의해서 준거타당도가 확인되었으며, 또한 지연행동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과의 정적상관, 다른 만성적 지연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들과의 높은 상관을 통해 수렴타당도 및 공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2인의 상담전공 박사 수료자가 각자 번안한 문안 중 가장 적절한 것을 토의를 거쳐 선정된 다음,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 능통한 1인의 심리학자가 원척도 문항을 검토하여 재수정한 번안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alpha=.84$ 이었다.

2) McCown & Johnson의 지연행동척도

McCown과 Johnson(1989a,b)이 개발한 5점 리커트식의 15문항으로 구성된 성인용 지연행동척도(Adult Inventory of Procrastination: AIP)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 계수는 $\alpha=.75$ 부터 $\alpha=.86$ 까지이다. 한달후 재검사 신뢰도는 $r=.71$ 이고, 여섯달후 재검사 신뢰도는 $r=.76$ 으로 보고되었다. 다양한 실제 지연행동과의 상관 및 집단 간 차이를 통해 준거타당도가 확인되었으며, 지연행동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 다른 지연행동 척도들과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들에 의해 수렴 및 공존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Lay의 지연행동척도 번안과정과 동일한 절차로 번안된 문항을 사용하였고 내적합치도 계수는 $\alpha=.85$ 이었다.

3) 감각추구척도

박윤창, 이미경과 윤진(1995)이 Zukerman, Eysenk와 Eysenk(1978)가 제작한 감각추구척도 5판(Sensation Seeking Scale-V: SSS-V) 40문항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20 문항을 추가한 다음, 요인분석을 통해서 선별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박윤창 등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모험추구요인 $\alpha=.82$, 경험추구요인 $\alpha=.62$, 금지해제요인 $\alpha=.83$, 권태민감요인 $\alpha=.65$ 이었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alpha=.83$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모험추구요인 $\alpha=.87$, 경험추구요인 $\alpha=.60$, 금지해제요인 $\alpha=.86$, 권태민감요인 $\alpha=.84$ 이었다.

4) 실패공포척도

Conroy, Willow와 Metzler(2002)의 PFAI-R(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Revised)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일차요인과 이 일차요인들이 실패공포라는 단일 이차(상위)요인으로 수렴되는 위계적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다. 5개의 일차요인은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자신이 평가 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이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alpha=.82$ 이고, 21일 후의 재검사 신뢰도는 $r=.87$ 이며, 표집과 시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요인구조를 보여주었다. 다양한 관련변인과의 상관을 통해 예언타당도,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이 척도의 1개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Lay의 지연행동척도 변인과정과 동일한 절차로 변안된 문항을 사용하였고 내적합치도 계수는 $\alpha=.89$ 이었다.

5) 완벽주의척도

(1) Frost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척도

Frost 외(1990)가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5문항 6개 하위척도로 구성된 5점 리커트식 척도이다. 6개 하위척도는 실수에 대한 염려 (9문항), 개인적 기준(7문항), 부모의 기

대 (5문항), 부모의 비판 (4문항), 조직화 (6문항), 수행에 대한 의심 (4문항)이며, 연구들에서 각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57~.95로 보고되었다. 또한 연구들에서 일관된 요인구조와 다양한 완벽주의 관련변인과 상관을 보여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패공포와 같은 방법으로 변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실수에 대한 염려 $\alpha=.84$, 조직화 $\alpha=.88$, 부모의 기대 $\alpha=.76$, 개인의 기준 $\alpha=.80$, 부모의 비판 $\alpha=.72$, 수행에 대한 의심 $\alpha=.67$ 이었다.

(2) Hewitt와 Flett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척도

Hewitt와 Flett(1991)가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를 사용하였다. 7점 리커트식 척도이다.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3개 하위척도에 15문항씩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척도 별 내적 합치도는 각각 .88, .82, .87로 보고되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대학생집단이 .75~.88, 정신과 환자집단이 .60~.69로 보고되었다. 연구들에서 일관된 요인구조와 다양한 완벽주의 관련변인과 상관을 보여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alpha=.88$,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alpha=.69$,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alpha=.58$ 이었다.

6) 자기효능감 척도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자신감(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2문항), 과제난이도 선호(5문항)의 3개 하위척도 2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내적 합치도 계수는 $\alpha=.81\sim.88$ 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 내적 합치도 계수는 자기조절효능감 $\alpha=.82$, 과제난이도선호 $\alpha=.85$, 자신감 $\alpha=.84$ 이었으며, 전체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87$ 이었다.

3. 자료분석

282 명의 자료에 대하여 SPSS v11.5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감각추구 척도, 실패공포척도, Frost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Hewitt과 Flett의 다차원적 완

벽주의 척도, 자기효능감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각 척도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행렬을 분해하는 방법으로는 주축요인분해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척도개발자의 연구에서 제안된 개수로 고정시켰다. 요인 간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요인구조를 회전하는 방법으로는 요인 간 상관을 허용하는 사각회전(direct oblimin)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을 선정할 때에는 척도개발자가 특정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이라고 결정한 문항들 중 형태계수행렬의 요인 부하량이 .3 이상인 경우만을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각 척도의 요인이 상위요인을 구성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각 요인들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평균하여 개인별 요인점수를 산출한 후, 요인점수들 간의 상관을 이용한 이차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행렬을 분해하는 방법으로는 주축요인분해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유치, 스크리 도표, 설명변량백분율, 해석가능성 기준을 이용하였다. 요인구조를 회전하는 방법은 독립적인 상위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직각회전(varimax)을 실시하였다. 상위요인에 포함되는 하위요인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요인 부하량이 .3 이상인 기준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후, 16명의 다변량 극단치를 제거한 268명의 자료를 이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두 지연행동 척도(GP/AIP)가 감각형과 회피형의 각기 다른 지연행동을 측정한다는 선행연구의 제안에 따라 지연행동은 두 종류의 척도로 각각 측정하였다. 지연행동에 미치는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 자기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른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척도의 요인구조

1) 감각추구척도

(1) 감각추구척도의 일차 요인분석

요인분석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5개가 있었지만, 스크리 도표와 해석가능성의 기준에 의하여 4개의 요인만 추출하였다. 4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59.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모험추구 요인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3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권태민감 요인이었다. 세 번째 요인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금지해제 요인이었다. 네 번째 요인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경험추구 요인이었다. 4개 요인간 상관계수는 .015~.405 이었으며, 모험추구 요인과 경험추구 요인 간 상관이 .405로 가장 높았다.

<표 1> 사각회전의 결과로 산출된 감각추구척도의 요인간 상관계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1	1.000			
요인 2	-.015	1.000		
요인 3	-.109	-.166	1.000	
요인 4	.405	.094	-.259	1.000

(2) 감각추구척도의 이차 요인분석

요인분석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2개가 있었으며, 2개의 요인은 전체변량의 68.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41.50%를 설명하였으며, 모험추구와 경험추구 요인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26.67%를 설명하였으며, 권태민감과 금지해제 요인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권태민감과 금지해제 간 상관계수가 .159 에 불과하고, 권태민감의 공통분이 .106인 점을 고려하

면, 권태민감과 금지해제를 하나의 상위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모험추구와 경험추구는 하나의 상위요인을 구성하고, 금지해제와 권태민감은 별개의 요인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표 2> 감각추구척도에 대한 이차요인분석의 요인부하량

	요인 1	요인 2	공통분
모험추구	.501	-.009	.251
권태민감	-.042	.323	.106
금지해제	.383	.541	.440
경험추구	.813	.107	.673
고유치	1.660	1.067	
변량백분율	41.501	26.669	

2) 실패공포척도

(1) 실패공포척도의 일차 요인분석

요인분석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Conroy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5개가 있었으며, 5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59.6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요인이었으며, 두 번째 요인은 3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신이 평가절하 되는 것에 대한 공포 요인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요인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요인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요인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각회전의 결과로 산출된 요인 간 상관계수는 .280~.553 이었다.

(2) 실패공포척도의 이차 요인분석

요인분석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1개만 있었으며, 전체변량의 58.7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실패공포요인들과 첫 번째 상위요인 간 관계를 나

타내는 요인부하량은 모두 .5 이상이었다. 따라서 실패공포척도의 5개 요인들은 단일한 상위요인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각회전의 결과로 산출된 실패공포척도의 요인간 상관계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1	1.000				
요인 2	.233	1.000			
요인 3	-.432	-.323	1.000		
요인 4	-.299	-.361	.454	1.000	
요인 5	.553	.280	-.399	-.375	1.000

<표 4> 실패공포척도에 대한 이차요인분석의 요인부하량

	요인 1	공통분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727	.528
자신이 평가절하 되는 것에 대한 공포	.513	.263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743	.553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702	.493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	.787	.619
고유치	2.939	
변량백분율	58.774	

3) 완벽주의척도

(1) Frost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척도의 일차 요인분석

요인분석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9개였지만, 스크리 도표와 해석가능성기준에 의하여 6개의 요인만 추출하였다. 6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55.8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수에 대한 염려 요인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6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직화 요인이었다. 세 번째 요인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모의 기대 요인이었다. 네 번째 요인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의 기준 요인이었다. 다섯 번째 요인은 3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모의 비난 요인이었다. 여섯 번째 요인은 2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행에 대한 의심 요인이었다. 6개 요인 간 상관계수는 .028~.422 이었다.

<표 5> 사각회전의 결과로 산출된 Frost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요인간 상관 계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1	1.000					
요인 2	-.140	1.000				
요인 3	.262	-.089	1.000			
요인 4	-.186	.333	-.186	1.000		
요인 5	-.246	-.162	-.115	-.028	1.000	
요인 6	.422	-.170	.176	-.118	-.113	1.000

(2) Hewitt과 Flett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척도의 일차 요인분석

요인분석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12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크리도표와 해석가능성의 기준에 의하여 3개의 요인만 추출하였다. 3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32.5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기지향 완벽주의 요인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7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요인이었다. 세 번째 요인은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타인지향 완벽주의 요인이었다. 3개 요인 간 상관계수는 .092~.286 이었다.

<표 6> 사각회전의 결과로 산출된 Hewitt & Flett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척도의 요인간 상관계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1	1.000		
요인 2	.092	1.000	
요인 3	.286	.138	1.000

(3) 완벽주의 척도의 이차 요인분석

요인분석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3개가 있었으며, 3개의 요인은 전체변량의 66.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이차요인은 전체변량의 35.88%를

설명하였으며, 조직화, 개인의 기준, 자가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요인이 포함되어 성취추구 완벽주의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 이차요인은 전체변량의 18.48%를 설명하였으며,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요인이 포함되어, 동일한 요인을 추출한 Dunkley 외(2000)와 Blankstein과 Dunkley(2002)가 명명한대로 평가염려 완벽주의라고 명명하였다. 세 번째 이차요인은 전체변량의 11.82%를 설명하였으며, 부모의 기대 요인과 부모의 비난 요인이 포함되어, 부모관련 완벽주의라고 명명하였다.

<표 7> 완벽주의 척도에 대한 이차요인분석의 요인부하량

	요인 1	요인 2	요인 3	공통분
실수에 대한 염려	.321	.716	.190	.651
조직화	.584	.060	-.098	.355
부모의 기대	.222	.101	.643	.473
개인의 기준	.613	.261	.233	.499
부모의 비난	-.192	.513	.603	.663
수행에 대한 의심	.284	.373	.023	.220
자가지향 완벽주의	.953	.153	.115	.945
사회부과 완벽주의	.040	.735	.142	.562
타인지향 완벽주의	.403	.070	.231	.220
고유치	3.229	1.663	1.063	
변량백분율	35.880	18.480	11.815	

4) 자기효능감척도

(1) 자기효능감척도의 일차 요인분석

요인분석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5개가 있었지만, 스크리 도표와 해석가능성의 기준을 적용하면 3개의 요인만 추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였다. 3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48.9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기조절효능감 요인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5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과제난이도선호 요인이었다. 세 번째 요인은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신감 요인이었다. 3개 요인 간 상관계수는 .211~.324 이었다.

<표 8> 사각회전의 결과로 산출된 자기효능감척도의 요인간 상관계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1	1.000		
요인 2	.211	1.000	
요인 3	-.324	-.243	1.000

(2) 자기효능감 척도의 이차요인분석

요인분석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1개만 있었으며, 전체변량의 51.7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자기효능감 하위요인들과 첫 번째 상위요인 간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부하량은 모두 .3 이상이었다. 자기효능감 척도의 3개 요인들은 단일한 상위요인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자기효능감척도에 대한 이차요인분석의 요인부하량

	요인 1	공통분
자기조절효능감	.606	.368
과제난이도선호	.384	.148
자신감	.593	.351
고유치	1.552	
변량백분율	51.733	

2.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 자기효능감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 및 자기효능감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후, 지연행동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 및 자기효능감을 회귀분석에 사용할 때에는 다중공선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각 척도의 이차요인들을 사용하였다.

두 지연행동척도 점수와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Lay의 지연행동척

도(GP)점수는 금지해제 요인($r=.017, p>.1$)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McCown과 Johnson의 지연행동척도(AIP) 점수는 금지해제($r=.009, p>.1$), 경험추구($r=-.068, p>.1$), 부모관련 완벽주의($r=.086, p>.1$)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표10).

그런데, 비록 GP와 경험추구 간 상관계수($r=-.135, p<.05$), GP와 부모관련 완벽주의 간 상관계수($r=.155, p<.05$)는 유의한 상관계수를 보였지만, GP와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에 비하여 다소 낮은 값을 보이고 있고, AIP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의 분석에서는 GP와 AIP 점수 모두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었던, 모험추구, 권태민감, 실패공포, 성취추구 완벽주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요인만을 사용하기로 결정 하였다.

<표 10> 지연행동 점수와 감각추구성향, 실패공포, 자기효능감 및 완벽주의 점수간 상관

	GP	AIP
모험추구	-.186**	-.147*
권태민감	.359***	.298***
금지해제	.017	.009
경험추구	-.135*	-.068
실패공포	.293***	.258***
성취추구 완벽주의	-.211***	-.170**
평가염려 완벽주의	.202**	.160**
부모관련 완벽주의	.155*	.086
자기효능감	-.471***	-.374***

* $p < .05$, ** $p < .01$, *** $p < .001$

GP 점수에 대한 6개 관련요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6개 요인들은 GP 점수를 29.6% 설명하였으며, 자기 효능감($\beta=-.290, p<.001$), 권태민감($\beta=.237, p<.001$), 성취추구 완벽주의($\beta=-.164, p<.01$) 요인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AIP 점수에 대한 6개 관련요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6개 관련요인들은 AIP 점수를 19.5% 설명하였으며, GP와 동일하게 자기 효능감($\beta=-.206, p<.01$), 권태민감

($\beta=.201$, $p<.001$), 성취추구 완벽주의($\beta=-.136$, $p<.05$) 요인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표 11> 지연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회귀계수	표준오차	t	R ²
GP	모험추구	-.075	.030	-1.380	.296***
	권태민감	.237	.035	4.265***	
	실패공포	.040	.073	.536	
	성취추구 완벽주의	-.164	.058	-2.578**	
	평가염려 완벽주의	.068	.074	.899	
	자기효능감	-.290	.074	-4.043***	
AIP	모험추구	-.060	.033	-1.030	.195***
	권태민감	.201	.038	3.383***	
	실패공포	.086	.080	1.068	
	성취추구 완벽주의	-.136	.063	-1.992*	
	평가염려 완벽주의	.027	.080	.329	
	자기효능감	-.206	.080	-2.688**	

* $p < .05$, ** $p < .01$, *** $p < .001$

그런데 모험추구, 실패공포, 평가염려 완벽주의 요인이 지연행동 변인들과 단순 상관관계에서는 유의미하였지만, 중다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산출된 것은 지연행동 변인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자기효능감이 나머지 요인들을 매개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Baron과 Kenny(1986)에 의하면, 매개모형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매개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회귀분석에서(① $X \Rightarrow M$) 유의미한 영향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회귀분석에서(② $X \Rightarrow Y$) 유의미한 영향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회귀분석에서(③ $X + M \Rightarrow Y$) 매개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독립변인의 회귀계수는 감소하고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의 분석은 일단 위의 회귀분석(표11)에서 수행한 셈이므로, 두 번째 조건과 첫 번째 조건의 분석을 위해, 종속변인(GP/AIP)에 대한 독립변인(모험추구, 권태민감, 실패공포, 성취추구 완벽주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회귀분석과, 매개변인(자기효능감)에 대한 독립변인(모험추구, 권태민감, 실패공포, 성취추구 완벽주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모형 검증의 두 번째 조건인 종속변인(GP/AIP)에 대한 독립변인(5개변인)의 회귀분석 결과, GP에는 모험추구($\beta = -.119, p < .05$), 권태민감($\beta = .278, p < .001$), 실패공포($\beta = .160, p < .05$), 성취추구 완벽주의($\beta = -.268, p < .001$)가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IP에는 권태민감($\beta = .230, p < .001$), 실패공포($\beta = .171, p < .05$), 성취추구 완벽주의($\beta = .209, p < .001$)가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2).

<표 12> 지연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② X => Y)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회귀계수	표준오차	t	R ²
GP	모험추구	-.119	.030	-2.188*	.252***
	권태민감	.278	.035	4.950***	
	실패공포	.160	.070	2.247*	
	성취추구 완벽주의	-.268	.055	-4.460***	
	평가염려 완벽주의	.130	.074	1.701	
AIP	모험추구	-.091	.032	-1.593	.173***
	권태민감	.230	.038	3.897***	
	실패공포	.171	.074	2.284*	
	성취추구 완벽주의	-.209	.059	-3.315***	
	평가염려 완벽주의	.070	.079	.878	

* $p < .05$, ** $p < .01$, *** $p < .001$ GP: Lay의 지연행동척도 AIP: McCown & Johnson의 지연행동척도

매개모형의 첫 번째 조건인, 매개변인(자기효능감)에 대한 독립변인(5개변인)의 회귀분석 결과, 모험추구($\beta = .154, p < .001$), 권태민감($\beta = .142, p < .01$), 실패공포($\beta = .413, p < .001$), 성취추구 완벽주의($\beta = .356, p < .001$) 및 평가염려 완벽주의($\beta = -.213, p < .001$) 모두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3).

<표 13> 자기효능감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① X => M)

	표준화회귀계수	표준오차	t	R ²
모험추구	.154	.025	3.369***	.476***
권태민감	-.142	.029	-3.021 **	
실패공포	-.413	.056	-6.920***	
성취추구 완벽주의	.356	.045	7.100***	
평가염려 완벽주의	-.213	.060	-3.330***	

* $p < .05$, ** $p < .01$, *** $p < .001$

위의 매개모형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표 14와 같다.

실패공포는 GP와 AIP 모두에서 매개모형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자기효능감을 완전 매개로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태민감과 성취추구 완벽주의는 세 번째 조건의 회귀분석($X+M \Rightarrow Y$)에서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였지만, GP와 AIP에 대한 직접효과($X \Rightarrow Y$)에서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보다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회귀분석에서 직접효과($X+M \Rightarrow Y$)에서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작게 산출되어 자기효능감이 권태민감과 성취추구 완벽주의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Sobel(1982)방식으로 계산해보면, 권태민감은 GP에서 매개효과 $b = -.409$, 직접효과 $b = .224$, ($z = 4.344$, $p < .001$), AIP에서 매개효과 $b = -.326$, 직접효과 $b = .189$, ($z = 3.786$, $p < .001$)로, 성취추구 완벽주의는 GP에서 매개효과 $b = -.459$, 직접효과 $b = -.193$, ($z = -3.542$, $p < .001$), AIP에서 매개효과 $b = -.371$, 직접효과 $b = .158$, ($z = -3.309$, $p < .001$)로 나타나 모든 부분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평가염려완벽주의는 매개모형의 두 번째 조건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GP와 AIP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부정되었다. 또 모험추구는 GP에서 매개모형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IP에서는 두 번째 조건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부정되었다.

<표 14> 지연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① $X \Rightarrow M$	② $X \Rightarrow Y$	③ $X + M \Rightarrow Y$
GP	자기효능감			-.290***
	모험추구	.1541***	-.119*	-.075
	권태민감	-.142**	.278***	.237***
	실패공포	-.413***	.160*	.040
	성취추구 완벽주의	.356***	-.268***	-.164**
	평가염려 완벽주의	-.213***	.130	.068
AIP	자기효능감			-.206**
	모험추구	.154***	-.091	-.060
	권태민감	-.142**	.230***	.201***
	실패공포	-.413***	.171*	.086
	성취추구 완벽주의	.356***	-.209***	-.136*
	평가염려 완벽주의	-.213***	.070	.027

주) 표안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GP : Lay의 지연행동척도 AIP: McCown & Johnson의 지연행동 척도

IV. 논 의

본 연구는 만성적 지연행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만성적 지연행동의 포괄적 설명모형을 마련하기위한 사전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문헌개관을 통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기적 특성으로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를 상정하고, 만성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이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한 다음, 인지적 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이 변인들과 만성적 지연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나타난 결과를 이슈별로 요약하면서 몇 가지 시사점을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척도의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한 7개 상위요인 중 지연행동과 상관이 확인된 6개 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지연행동에 대해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두 지연행동 척도(GP/AIP) 모두에서 권태민감, 성취추구 완벽주의, 자기효능감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었다.

이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실패공포와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탈락한 것과 성취추구 완벽주의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두 지연행동척도 간에 지연행동 예측변인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Frost의 완벽주의척도(FMPS)의 6개 요인과 Hewitt과 Flett의 완벽주의척도(HMPS)의 3개 요인들의 이차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상위요인인데, FMPS의 실수에 대한 의심, 수행에 대한 의심, HMPS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세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 연구들(Fleet et al., 1992; Frost et al., 1990; Martin et al., 1993)에서 이 세 요인 각각은 지연행동과 일관된 정적상관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 세 요인으로 구성된 평가염려적 완벽주의가 GP와 AIP와의 상관분석에서 비록 낮은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GP와 AIP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몇 관련변인과 함께 투입한 중다회귀분석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난 연구(Wernicke, 1999)와는 일관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간 일관된 정적상관을 보이는 서구와 달리 서론에서 인용한 바 있는 근래 국내연구에서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거나 낮은 수준의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서구와 다르게 자신의 중요한 인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부응하려는 동기가 강한 것이 과업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적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관계문화인 우리나라의 경우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이 주는 신뢰와 정서적 지원이 중요한데(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이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하는바, 부모를 비롯한 중요한 인물의 기대는 근면과 노력 등의 성실한 태도이므로(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와 유사하게 실패공포도 서구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aton과 Dembo(1996)에서 아시아계 미국학생은 비아시아계 미국학생보다 실패공포는 더 높고 자기효능감은 더 낮았음에도 성취과제 수행은 더 우수함으로써 아시아계 학생에게는 자기효능감의 설명력을 넘어설 정도로 실패공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성취추구 완벽주의는 FMPS의 개인적 기준, 조직화, HMPS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로 구성된 두 완벽주의 척도의 상위요인이다. 그런데

성취추구 완벽주의는 지연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취추구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지연행동의 발생은 감소한다. 이는 완벽주의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했던 전통적인 연구(Burns, 1980; Pacht, 1984)와는 다르지만, 최근 완벽주의를 적응적 차원과 부적응적 차원으로 인식하는 연구(Frost et al., 1993; Dunkley et al., 2000; Enn et al., 2001; Hill et al., 2004)와는 부합하는 결과로 완벽주의 기능적인 측면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지연행동 척도(GP/AIP)가 각각 감각형과 회피형의 서로 다른 지연행동 유형을 측정한다는 Ferarri 외(1995)의 제안에 따라 두 척도로 측정된 지연행동을 각기 예측하는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두 척도 간 상관이 매우 높고, 지연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요인이나 예측요인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의 제안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유의하게 나타난 예측변인 중 자기효능감과 권태민감은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변인이었고, 자기효능감은 상당수 예측변인과 지연행동 간에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지연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변인으로 나타난 연구들(Eerde, 2003; Haycock, et. al., 1998 등)과 일치하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지연행동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Haycock 외(1998)는 기존의 지연행동극복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을 다루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기효능감 증진에 기초한 지연행동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효능감은 근래 Kuhl(1984, 2000)의 통제이론을 비롯한 인지적 자기조절이론과 통합되면서 보다 정교한 개념으로 지연행동에 대한 설명을 생산해내고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동기변인-자기조절변인-지연행동의 경로모형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권태민감은 자기효능감에 버금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어 지연행동을 유발하는 또 다른 중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권태민감은 일상적인 일이나 판에 박힌 일 또는 반복적인 경험과 흥미 없는 사람에게 싫증을 느끼고 지루함을 느끼는 경향성이다. 선행연구에서 실험에서 유발한 지연행동과 실제 지연행동에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혐오적 과제의 특성은 지루함(boredom)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Blunt & Pychyl, 2000; Senecal et al., 1997; Sigall et al., 2000), 이는 권태민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지연행동을 더 하기 쉽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Vodanovich

와 Rupp(1999)는 권태감의 감소는 지연행동을 감소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 하였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심리측정적 적절성을 확인하고, 만성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기적 특성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이 변인들과 지연행동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이 변인들의 설명력이 약 20%와 30%로 그다지 크지 않게 나온 것은 만성적 지연행동의 복합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개입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명모형탐색에는 제한점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표집하고 실제지연행동이 아닌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얻어진 자료로 횡단적 연구를 한 것은 본 연구의 연구방법의 제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표집대상을 확대하고 일상기록법 또는 호출을 통한 점검기록법(Scher & Ferrari, 2000)등을 사용하여 실제지연행동을 측정하고 종단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미정(2005). 완벽주의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충북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근홍 · 이민규(1998).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우울과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7권 제1호, pp.211~222
- 김아영 · 차정은(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51~64.
- 김연실(2000). 부모권위에 따른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2003). 완벽주의, 충동성, 자기효능감 및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환(1999). 학업적 구물거림에서 실패공포가 과제제출행동 지연에 미치는 영향.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 김의철 · 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권 제3호, pp.37~59.
- 박영신 · 김의철 · 탁수현(2004). 한국 일탈청소년의 토착심리탐구: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권 제1호, pp.107~145.
- 박윤창 · 이미경 · 윤진(1995). 자극추구동기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95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pp.377~386.
- 박재우(1998). 과제의 자아위협도와 완벽주의가 과제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은희(2006).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요인들의 매개효과. 미래교육연구, 제19권 제2호, pp.24~41.
- 홍승일 · 현명호(2005). 지연경향성과 심리적 불편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대처방식, 과제의 자아위협도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4권 제1호, pp.259~277.
- Arnett, J.(1994). Sensation Seeking: A new conceptualization and new Scale. *Personality*

-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6, pp.289~296.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owards a model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pp.191~21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pp. 1173~1182.
- Baumeister, R. F., Heatherton, T. F., & Tice, D. M.(1994). *Losing control: How and why people fail at self-regula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eswick, G., Rothblum, E. D., & Mann, L.(1988). Psychological antecedents of student procrastination. *Australian Psychologist*, vol. 23, pp.207~217.
- Blankstein, K. R. & Dunkley, D. M.(2002). Evaluative concerns, self-critical, and 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ategy. In G. L. Flett and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285~31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lunt, A. K. & Pychyl, T. A.(1998). Volitional action and inaction in the lives of undergraduate students: State orientation, procrastination, and proneness to boredo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24, pp.837~846.
- Blunt, A. K. & Pychyl, T. A.(2000). Task aversiveness and procrastination: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ask aversiveness across stages of personal projec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28, pp.153~167.
- Burka, J. B. & Yuen, L. M.(1983). *Procrastination: Why you do it, what to do about it*. Reading, MA: Addison-Wesley.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
- Caraway, K. & Tucker, C. M.(2003). Self-efficacy, goal orientation, and fear of failure as predictors of school engagement in high school students. *Psychology in the School*, vol. 40, pp.2003.

- Chu, A. H. C. & Choi, J. N.(2005). Rethinking procrastination: Positive effects of “active” procrastination behavior on attitudes and performanc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45, pp.245~264.
- Conroy, D. E.(2001).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fear of failure: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Anxiety, Stress, & Coping*, vol. 14, pp.431~452.
- Conroy, D. E., Willow, J. P., & Metzler, J. N. (2002). Multidimensional fear of failure measurement: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vol. 14, pp.76~90.
- DeWitte, S. & Schouwenburg, H. C.(2002). Procrastination, temptation, and incentives: The struggl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in procrastinators and the punctual.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 16, pp.469~489.
- Dinter, L. D.(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life style pattern.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vol. 56, pp.463~473
- Dunkley, D. M., Blankstein, K. R., Halsall, J., Williams, M., & Winkworth, G.(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7, pp.437~457.
- Eaton, M. J. & Dembo, M. H.(1996). *Difference in the motivational beliefs of Asian American and Non-Asian American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Eccles, J. S. & Wigfield, A.(2002). Motivational beliefs, value,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3, pp.109~132.
- Eerde, W. van.(2003). A meta-analytically derived nomological network of procrast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5, pp.1401~1418.
- Eerde, W. van.(2004). Procrastination in academic settings and the big five model of personality: A meta-analysis. In H. C. Schouwenburg, C. Lay, T. A. Pychyl, & J. R. Ferrari (Eds.), *Counseling the procrastinator in academic settings*. Washington, DC: APA Publishing, pp.29~40.

- Ellis, A. and Knaus, W. J.(1977). *Overcoming procrastination*. New York: Institute for Rational Living.
- Enns, M. W., Cox, B. J., Sareen, J., & Freeman, P. (2001).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in medical student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Medical Education*, vol. 35, pp.1034~1042.
- Ferrari, J. R. & Pychyl, T. A.(2000). The scientific study of procrastination: Where have we been where are we going?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15, vii-viii.
- Ferrari, J. R.(1992). Psychometric validation of two adult measures of procrastination: Arousal and avoidance measure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vol. 14, pp. 97-110.
- Ferrari, J. R.(1993). Procrastination and impulsiveness: Two sides of a coin? In W. G. McCown, J. L. Johnson, & M. B. Shure (Eds.), *The impulsive client: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265~27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errari, J. R.(2004). Trait procrastination in academic settings: An overview of students who engage in task delays. In H. C. Schouwenburg, C. Lay, T. A. Pychyl, & J. R. Ferrari.(Eds), *Counseling the procrastinator in academic settings* (pp.19~28). Washington, DC: APA Publishing,
- Ferrari, J. R., Johnson, J. L., & McCown, W. G.(1995).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New York: Plenum.
- Ferrari, J. R., Parker, J. T., & Ware, C. B.(1992). Academic procrastination: Personality correlates with Myers-Briggs types, self-efficacy, and academic locus of control.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7, pp.495~498.
- Flett, G. L., Blankstein, K. R., Hewitt, P. L., & Koledin, S.(1992). Components of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vol. 20, pp.85~94.
- Flett, G. L., Blankstein, K. R., & Martin, T. R.(1995). Procrastination, negative self-evaluation, and stress in depression and anxiety: A review and preliminary

- model. In J. R. Ferrari, J. L. Johnson, & W. G. McCown (Eds.),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137~167). New York: Plenum Press.
- Flett, G. L., Hewitt, P. L., Oliver, J. M., & Macdonald, S.(2002). Perfectionism in children and their parents: A developmental analysi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89~13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rost, R. O., Marten, P. A., Lahart, C., & Rosenblate, R.(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 14, pp. 449-468.
- Harriot, J. & Ferrari, J. R.(1996). Prevalence of procrastination among samples of adults. *Psychological Reports*, vol. 78, pp.611~616.
- Haycock, L. A., McCathy, P., & Skay, C. L.(1998).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self-efficacy and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76, pp.317~324.
- Hewitt, P. L. & Flett, G. L.(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0, pp.456~470.
- Hill, R. W., Huelman, T. J., Furr. R. M., Kibler. J., Vicente. B. B., & Kennedy. C. (2004). A new measure of perfectionism: The Perfectionism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82, pp.80~91.
- Johnson, J.(1992). *The SS-77. A measure of psychological symptom severity*. Princeton, NJ: North Shore Press.
- Kuhl, J.(1984). Volitional aspects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ed helplessness: Toward a comprehensive theory of action control. In B. A. Maher, & W. B. Maher (Eds.),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Normal personality processes* (V. 1, pp.99~171). Toronto, Ontario, Canada: Academic Press.
- Kuhl, J.(2000). A functional-design approach to motivational and self-regulation: The dynamics of personality systems interactions. In M. Boekaerts, P. R.

- Pintrich, & M. Zeidner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111~169). San Diego, CA: Academic.
- Lay, C. H. (1986). At last, my research article on procrast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20, pp.474~495.
- LoCicero, K. A. & Ashby, J.(2000).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in middle school age gifted versus non-gifted students. *Roeper Review*, vol. 22, pp. 162~167
- Loebenstein, A.(1996). *The effects of subgoal setting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procrastin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San Diego, CA.
- Martin, T. R., Flett, G. L., & Hewitt, P. L.(1993). *Perfectionism, self-expectancies, and procrastination*. Unpublished manuscript.
- McCown, W.(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venturesomeness, impulsivity, and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and adults*. Integra/Apogee Technical Research Paper No. 95-08. Radnor, PA: Integra/Apogee Inc.
- McCown, W., & Johnson, J.(1989a). *Validation of an adult inventory of procrastination*.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Personality Assessment, New York.
- McCown, W., & Johnson, J.(1989b). *Nonstudent validation of an adult inventory of procrastin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Orleans, LA.
- Muraven, M., Tice, D. M., & Baumeister, R. F.(1998). Self-control as limited resource: Regulatory depletion patter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4, pp.774~789.
- Pacht, A. R.(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 39, pp. 389~390.
- Rothblum, E. D.(1990). Fear of failure: The psychodynamic, need achievement, fear of success, and procrastination models. In H. Leitenberg (Ed.),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pp.497~537). New York: Plenum.
- Scher, S. J., & Ferrari, J. R.(2000). The recall of completed and non-completed

- tasks through daily logs to measure procrastin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15, pp.255~265.
- Schouwenburg, H. C.(1992). Procrastinators and fear of failure: An exploration of reasons for procrastin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 6, pp.225~236.
- Schouwenburg, H. C.(2004). Procrastination in academic settings: General introduction. In H. C. Schouwenburg, C. Lay, T. A. Pychyl, & J. R. Ferrari (Eds), *Counseling the procrastinator in academic settings* (pp.3~17). Washington, DC: APA Publishing.
- Senecal, C., Lavoie, k., & Koestner, R. (1997). Trait and situational factors in procrastination: An interactional model.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vol. 12, pp.889~903.
- Sigall, H., Kruglanski, A., & Fyock, J. (2000). Wishful thinking and procrastin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15, pp.283~296.
- Sobel, M. E.(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pp.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olomon, L. J. & Rothblum, E. D.(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pp. 503-509.
- Stajkovic, A. D. & Luthans, F.(1998). Self-efficacy and work-related performanc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4, pp.240~261.
- Tuckman, B. W. & Sexton, J. L.(1991). The effect of teacher encouragement on student self-efficacy and motivation for self-regulated performance.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vol. 6, pp.137~146
- Tuckman, B. W.(1991). The development and concurrent validity of the Procrastination Sca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51, pp.473~480.
- Vodanovich, S. J. & Rupp, D. E.(1999). Are procrastinators prone to boredom?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vol. 27, pp.11~16.
- Wernicke, R. A.(1999). *Mediation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Unpublished paper. The American University.

Zuckerman, M.(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Zuckerman, M., Eysenck, S. B., & Eysenck, H. J.(1978). Sensation seeking in England and America: Cross-cultural, age, and sex comparis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6, pp.139~149.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Sensation Seeking, Fear of Failure, Perfectionism and Chronic Procrastination of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Lim, Sung-Moon**

This study had two purpose. First, to confirm the relation between sensation seeking, fear of failure, perfectionism and chronic procrastination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Second, to test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sensation seeking, fear of failure, perfectionism and chronic procrastination.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68 students(male 130, female 137). Two statistical procedures were performed. First, factorial analysis with data of 5 scales used in this study for psychometric property. Seco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procrastination of the predictive variable with factors of sensation seeking, fear of failure,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stepwise regression of Baron & Kenny to know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sensation seeking, fear of failure, perfectionism and chronic procrastination. The result were as follow. First, the significant predictive variables for procrastination were boredom factor of sensation seeking, achievement factor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Second, self-efficacy showed mediating roles between sensation seeking, fear of failure, perfectionism and chronic procrastination.

Key Words : chronic procrastination, sensation seeking, fear of failure, perfectionism, self-efficacy

투고일 : 9월 14일, 심사일 : 10월 24일, 심사완료일 : 10월 24일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07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